

-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 헌신예배: 오늘 오후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립니다.  
 > 헌신기관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도님들은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 정기교육위원회: 오후예배 후에 정기교육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 성구암송대회: 1월성구 암송대회를 오늘 오후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주보5쪽)
-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 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영광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 다음주는 유명만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 각반 성경공부: 중직자들과 성경을 구체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 금요기도회: 2월26일 금요기도회는 제1여전도회 주관으로 모입니다(저녁8시).  
 >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일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접견실, 카타쿰기도굴, 남여중보기도실에 온열난방 설치).  
 > 담당자: 주(서향임) 월(전순이) 화(이준호) 수(김기태) 목(김문옥) 금(김명관) 토(이현일)
- 보리떡운동: 성도님들이 걱정하던 헌금을 보리떡 운동이라 했습니다.  
 > 전성도님들은 보리떡 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066-107-313157(광주은행)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 주차안내: 교회 중직자들의 차량은 노인복지관주차장, 영천초등학교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회장동정: 영남노회 제직수련회- 금주 2월22일(월)-24일(수)까지  
 > 인도할 계획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사님들 중에 중보기도를 해 주실 분은 이영희사모님께 연락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세미나: 제1회 주교연합회 신년교사세미나가 금주 27일(토) 1시-6시까지 광주은광교회당에서 김연규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실시됩니다.  
 > 주일학생 20명에서 500명으로 부흥시킨 사역자의 생생한 세미나입니다.  
 > 교사들은 참여하여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 좋은 배움의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 축졸업: 김성훈전도사님 졸업식이 2월23일(화) 오후2시에 천안 신대원강당에서 거행됩니다. 최지혁부목사님이 책임자되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에서 출발시간은 9시30분입니다. 시간엄수 바랍니다.
- 다음주: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 당회로 모입니다.
- 주일전도: 4남, 5남, 8여, 9여전도회 전도주일(주공아파트 7단지).  
 > 남전도회-최지혁부목사, 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인도로 실시바랍니다.
- 주일심방: 이준호 김태석장로, 최옥기 진윤희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 입원성도: 조복임집사(동아병원) 최봉주집사(성심병원) 박일순집사(성심병원) 김영숙모친(조선경권사 모친-아산병원) 정하섭장로-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 대한예수교 총회 하남은광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마26:46)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성구 암송대회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2월은 기도의 달

-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중 송희중 옥 룡 김중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옥 룡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객세중,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이은혜·김예슬

**【마리아성가대】**  
 ◆대장:김문옥, 지휘:김유영(곽지혜)  
 ◆반주:김수경·계경숙

1/1-2/9 홍해작전 40일 특별새벽기도회(9일)  
 2/1 교역자산상기도회(교역자, 복지팀)  
 2/7 복지위원회 헌신예배(가과,홈스쿨,경로대학) 정기제직회(오후예배 후 본당)  
 여호수아,1남,4여,5여전도주일  
 2/14 2남, 3남, 6여, 7여전도회 전도주일  
 2/21 선교헌신예배(주일오후예배)  
 정기교육위원회(오후예배후 새신자실)  
 2/28 4남,5남,8여,9여전도회 전도주일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월례회(낮예배후 각 기관 별)  
 당회(오후예배후 당회원 실)  
 청년부, 대학부, 10여,사라여전도회 전도주일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섬김이	인도자
10-12							

-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홈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 사회자  
\*개회송영 ... 성가대  
\*기원 ... 사회자  
\*찬송 ... 5(통3) ... 다같이  
\*성서교육 ... 제 8 문 ... 다같이  
\*사죄확신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0(통34) ... 다같이  
기도 ... 1부 김병엽장로  
2부 이동만장로

성경봉독 ... 눅21:34-36(신133)  
찬양 ...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 ... 다같이  
찬송 ... 369(통487) ... 다같이  
봉헌 ... 다같이  
감사기도 ... 설교자  
\*주기도송 ... 다같이  
\*축도 ...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 다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찬송 ... 405(통45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 주일 오후 예배

[ 선교헌신예배 ]

오후 2시30분 사회: 옥룡 장로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김문옥 장로  
성경봉독 / 딤후 2:1-4(신344)  
특송 / 선교위원회 일동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헌금 / 261(통195) / 손문옥집사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 7시~8시(창세기)

###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김기태 장로  
설교: 최지혁부목사

찬송 / 361(통480) / 다같이  
대표기도 / 장미옥 권사  
성경봉독 / 대상 4:9-10(구614)  
특송 / 제19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최지혁부목사  
"야베스의 기도"

헌금기도 / 365(통484) / 이봉순권사  
광고축도 / 최지혁부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김요상	954-3319	겸면중앙교회/5만
	2						양혜숙	951-2437	서부은광교회/15만
	3	입태례	6	13000	120	정영순	송희중	953-7579	장산중앙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김태석	434-2827	연동은광교회/5만
	5						이현일	952-5880	경동교회/5만
	6	전경순	4	8000	70	김영례	이동만	953-0774	금호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조선경	952-1672	영광교회/5만
	8						박의하	954-4684	용산중앙교회/5만
	9						진영만	956-2902	노력도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김경애	945-2713	남도시민교회/5만
	11						최상윤	384-8475	서림교회/5만
	12	신진성	4	11000	115	민찬임	김명관	961-9632	삼기중앙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유재섭	7	7000	200	김공례	김숙경	956-5064	세계포도원교회/5만
	14	김양선	4	5000	27	박삼순	서향임	951-2785	광주반석교회/5만
	15						최옥기	952-7101	오치은광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정현아	5	14000		전순이	전순이	671-1109	오치은광교회/5만
	17	교회	4	7000		김선애	조윤기	954-3784	사랑의교회/5만
	18	교회	7	12000	72	김선영	강성명	942-3919	심미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952-8667	광덕교회/5만
	20	이준호	3	8000		이동만	이준호	952-8590	연화교회/5만
	21	정종균	7	7000		최성욱	한만희	956-0484	운암평화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종장로	22	교회	5	5000		김문옥	김문옥	954-2660	구름다리교회/5만
	23						김태호	01039778667	구름다리교회/5만
	24						김종철	953-9917	대전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서점순	961-8640	대전교회/5만
	26	장영희	7	7000	56	김현열	안영철	01050437055	송정은평교회/5만
	27	김숙자	7	22000	240	고광국	손종기	962-3301	나주신광교회/5만
제10지구장 옥통장로	28						서진욱	413-5357	아가페교회/5만
	29						김성훈	952-3304	미션21/5만원
	30						임춘진	962-8516	남악신광교회/10만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1	권화숙	7	8000	47	유영만	유영만	961-3477	남악신광교회/10만
	32	허성복	5	5000		김용덕	김용덕	01026362114	군선교연합회/5만
	33	안수집사회					김영근	956-1538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제12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4	권사회					임춘진	962-8516	중도실명자선교회/5만
	35	중등부	5				손성은	962-6487	오일환선교사/5만
	36	고등부	6				유화평	961-3477	오일환선교사/5만
제13지구장 최상윤장로	37	은광어린이	17	10000			임현옥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8	아남예수	8	10000			옥승주	954-2360	CBS기독교방송/10만
	39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CBS기독교방송/10만
제14지구장 손종기 목사	40	대학부	6				김진선	953-3909	열방네트웍/5만
	41	청년부					김건승	961-9632	열방네트웍/5만
	42	교회	6	10000	270	교회	최지혁	385-1320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 2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곽세종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곽세종 장로 ◆2부 송희중 장로 다음주일 오후기도: 윤성래 집사 다음삼일사회특송: 이준호 장로(20구역) 다음삼일기도: 문채숙, 헌금: 황정선권사 금주 2/27(토)청소: 4남전도, 9여전도회 이번주(21)식사당번: 5, 7, 8 구역 다음주(27)식사당번: 9, 10, 11 구역
	2부	김기태 김종철 유영만	
안내	이동만 서진욱 박동수 박종관 이건욱 고용주 이봉순 조선경 김숙자 권화숙 김순심 강춘자 정영옥 정순영 신은숙 송숙란 양선숙 우숙희 전운선 양재숙 황애자 임순분 김경애 조정화 박경희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 등이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국 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없고 시작부터 반역에 의하여 나라를 세운 형편이어서 아홉 차례나 정변이 일어나는 등 정권이 불안정하였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 다. 예루살렘 성전이 백성들의 삶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잘 다듬어진 성전 중심의 예전을 통하여 유다는 공동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마저 어느 새 여호와 신앙을 잃고, 아름다운 신앙 의 전통도 놓치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 운 일입니다. 이제 유다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하여 나라 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 명하셨습니다(왕하22:5-6).**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여덟 살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를 나이라는 이야 기입니다. 아버지 아몬이 겨우 스물네 살에 유다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반역을 당해 죽자 급히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린 요시아였지만 그는 정직하였고 '조상 다 윳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바르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스물여 췌 살 청년의 나이에 이르자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급하게 여겨졌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 었고,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은도 있었지만 성전의 부서진 부분도 수리하지 않고 있 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성전에 대한 관심, 나아가 그들의 신앙을 알 수 있게 합니 다. 서기관 사반에게 수리를 지시하면서 요시아는 그동안 돈 맡은 사람들의 진실성 을 평가하며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요시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2.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 순종하였습니다(왕하22:13).**

성전의 수리가 시작되면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책의 성격 에 관하여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란을 이어왔습니다. 유다에는 그동안 율법 책이 없 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발견한 책은 모세 오경과는 다른 종류의 율법 책이라는 말인 지 의아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이 모세 오경 가운 데 신명기서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유다 왕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성전에서는 안식일마다 율법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독립적으로 발견된 이 책을 읽고서 요시아 왕은 단번에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결 론을 내립니다. 아마도 신명기서에 보이는 저주의 선언(신27:11-26)을 주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왕하22:20).**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한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은 선지자에게서 듣는다는 말입 니다. 이 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홀다였습니다.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홀다는 이미 하 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요시아 왕이 읽은 그대로 하나님은 유다 땅과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재앙의 이유 역시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 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노케 하였음이라"(17절) 꺼지지 않는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배려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접한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 의 눈으로 재앙을 목도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가?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도의 기도는 영적전쟁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엡6:18).**

1)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신앙이 풀어지고, 양심이 악에 오염되고 영혼이 죄에 무방비상태가 되는 순 간부터 성도는 사단 권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도우 심과 그 권능 안에 보존돼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 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26:41)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명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죄와 사망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보 호하는 '방어무기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쉴 사이 없듯이, 기도 도 쉴 사이 없이 항상 행해야 합니다.

2)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나가 적극적으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성령의 검'(엡6:16,17)을 대적에게 휘둘러 수 있는 공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수께서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사단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가 그것입니다. 축사, 병 고침, 구 제, 사랑, 전도의 은사들입니다

**2. 성도의 기도는 축복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히4:16).**

1)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 받게 합니다.  
성도는 언약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 권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성도의 믿음 의 응답이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과 축복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2)성도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모든 의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불가능한 것들입니 다.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선민처럼, 가나안 여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루기 불가능한 장벽들이 무수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기도했고 그 수많은 장애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극복했 습니다.

**3.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사55:6).**

1)기도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성도의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의 비결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그 요 건입니다. 즉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 하는 생활입니다.

2)기도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기도란 광의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입술로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워 기도를 해도 그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참된 기 도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맺는 말  
성도라면 기도는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영 적인 무기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과 동행의 대화로, 기도의 방편을 우리 성 도에게 허락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운동주(尹東柱; 1917-1945) 시인. 북간도 명동(明洞)에서 기독교 장로의 장손으로 출생. 어릴 때 이름은 해환(海煥). 명동 소학교, 은진 중학, 평양 숭실 중학, 용정(龍井)의 광명 중학 등에서 공부했고, 연희 전문학교 문과를 마치고 일본에 유학, 립교(立敎) 대학과 동지사(同志社)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1943년 7월 여름 방학 때 귀향하기 직전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년형을 언도받고 복강(福岡) 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 그의 시는 소년다운 순결한 의식과 기독교적 참회의 정신을 시의식의 바탕에 깔고 있다. 1948년 유고 시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나왔다.

이 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부적 변민과 의지를 보여 준다.  
 앞의 두 행에서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말한다.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달관한 말이 아니다.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어 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사람이 부끄럼 없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알 터기 때문이다. 세상은 불완전하며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험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 삶에 타협하게 한다. 이 작품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이다. 그것은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과 결백한 신념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더욱이 삶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식민지의 상황 아래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운동주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반성의 언어로서 답한다.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난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 없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뜨거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도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 시가 보다 높은 경지를 이루는 것은 여기에 다음의 넉 줄이 이어짐으로써 이다. 밤하늘의 맑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겠다는 담당한 결의는, 자칫 무모한 변민에 그칠 수도 있는 양심적 자각을 성숙한 삶의 의지로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극히 담담하면서도 의연한 결의와 태도를 느끼게 한다.  
 별도의 연으로 따로 떨어진 마지막 행은 이와 같은 결의를 시적으로 승화시킨 이미지이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했을 때, 이 별의 암시적 의미는 어둠과 바람 속에서도 결코 꺼지거나 흐려질 수 없는 외로운 양심에 해당한다. 그것은 운동주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젊은 이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한 줄이 덧붙여짐으로써 양심의 결백함에 대한 그의 외로운 의지는 어두운 밤하늘과 별, 그리고 바람이라는 사물들의 관계를 통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다. [해설: 김홍규] (손종기 발췌·개제하다)

이천 십년 이월이십일일  
 담임목사 손종기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감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	다	같	이
대표기도	.....	장	미	옥
특	.....	제	1	여전도회
설	.....	손	종	기
개인기도	.....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li> <li>●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어나라 함께 가자! 2010년에는 주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게 하소서</li> <li>● 2010년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는 교회되게 하소서</li> </ul>	
기도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li> <li>●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li> </ul>	김숙경 권사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니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li> <li>● 복지관련립과 복지사역을 위해 지혜, 인재, 물질 허락 하소서</li> </ul>	최옥기 권사
직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li> <li>● 2010년 임원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li> </ul>	김혜중 집사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li> <li>●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li> </ul>	합심기도
국가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li> <li>●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li> </ul>	합심기도
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임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li> <li>●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li> </ul>	



● 십 일 조

교역자 : 손종기 최지혁 전순이  
 장로 : 송희중 김태석 이현일  
 안수집사 :  
 권사 : 문채숙 박성애 권화숙  
 집사 : 김천대 정영순 김영월 박자영 박금용 곽순금 이병욱 김판심 박성희 방연혁  
 방찬혁 양재숙 정봉진 이선화 김정순 한정자  
 ♡♡♡♡ : 이영희

● 감사헌금

교역자 : 손종기 전순이 서향임 문종승 최지혁  
 장로 : 김태석 김요상 김영태 옥 룡 이현일 김기태  
 안수집사 : 최재현 유명만 김영근  
 권사 : 김숙경 권화숙 방봉순 양혜숙 임현옥 박경남 김숙자 임춘진 이정자 김신자  
 황생자 김복희  
 집사 : 김영월 임종만 이옥순 김경식 김판심 윤정희 손우정 오금례 김유영 한정자  
 최순희 신은숙 김천대 임종태 박복임 허성복 최성자 옥승주 정순영 김영미  
 양정순 조기엽 박중삼 김영월 정도경 염갑순 김희석 김양선 한정자 기연님  
 오영자 김달삼 정영순 김지현  
 ♡♡♡♡ : 임윤님 문귀만 윤정숙 이영희 김재열 김선희 정순비 이재님 정해정 송정자  
 장영희 최성자 김중엽 공점례 전기순 방순희 정새로나 강미순 정순동 박성구  
 이개자

● 선교헌금

교역자 : 최지혁  
 장로 : 김문옥  
 안수집사 : 유명만  
 권사 : 권화숙  
 집사 : 김혜중 김영월 오금례 한정자 유은지 유화평  
 ♡♡♡♡ :

● 복지헌금 · 보리떡 · 구제비

이정자 송희중 서진욱 이현순 이대남 한정자 김숙경 정도경 양재숙 김영월 김천대  
 김판심 조용익 조운미 박중삼 김요상 방봉순 손종기 제2남 제1남 은광어린이집 아브라함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김천대 이정자 김숙경 송희중 조운기 김민균 양재숙 김영월 이재성 최순희 김영미  
 김영태 김중철 박동수 김복희 김기모 무 명

2010. 1. 3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  
 라(신명기6:4-5)

2010. 1. 10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시편94:9)

2010. 1. 1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  
 뢰라(빌립보서4:6)

2010. 1. 24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  
 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20)

2010. 1. 31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편50:15)

★ 제4차 2010년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일자	요일	성명	비고	일자	요일	성명	비고
2/7일	주	박미정	010-3619-0362	5일	금	최상윤	010-5059-8475
		이정자	010-5509-0809	6일	토	김요상	011-602-0724
8일	월	서정순	010-8944-8640	7일	주	김희중	010-5468-1670
		김숙자	010-2360-5214	8일	월	진영만	010-5605-2902
9일	화	김동해	019-406-2586	9일	화	김태석	010-8777-2827
		방정원	010-9474-2787	10일	수	김용덕	010-2636-2114
10일	수	진윤희	010-7488-9851	11일	목	오광록	010-7603-9851
		장미옥	010-7704-9917	12일	금	유영만	010-3629-3477
11일	목	문채숙	010-5643-0198	13일	토	김영근	011-638-1538
		양혜숙	010-6873-2437	14일	주	한만희	011-9739-0484
12일	금	김점자	010-6653-0559	15일	월	손문옥	011-9606-6487
		김숙경	010-8245-5064	16일	화	조윤기	016-681-3784
13일	토	허경자	011-9607-8475	17일	수	한경택	011-633-7200
		방봉순	011-605-3310	18일	목	장기술	011-9604-0577
14일	주	황생자	010-9877-1729	19일	금	최재현	010-6231-4589
		권화숙	010-7708-4315	20일	토	박의하	010-2231-4684
15일	월	김순심	010-7721-3238	21일	주	장승준	010-6609-2782
		유암덕	010-5339-1831	22일	월	이대남	010-2615-5064
16일	화	김정숙	010-2467-2113	23일	화	김재한	011-617-0571
		이귀님	062) 952-8590	24일	수	서진욱	010-5446-5357
17일	수	손중기	010-7283-8291	25일	목	이병권	010-6203-8640
18일	목	최지혁	010-3615-1638	26일	금	박동수	010-5602-7559
19일	금	문종승	010-7617-4070	27일	토	김용신	010-3008-6567
20일	토	김성훈	010-3827-7655	28일	주	임춘진	011-604-8516
21일	주	서향임	018-629-2785	29일	월	김신자	010-7752-8667
22일	월	전순이	010-2999-7540			서금자	016-9225-2602
23일	화	이준호	010-6280-8590	30일	화	모순자	010-6610-5880
24일	수	김기태	010-6623-8667			최옥기	010-4323-7101
25일	목	김문옥	010-2565-2602	31일	수	유금례	010-9455-9579
26일	금	김명관	011-640-9608			이봉순	016-9601-3784
27일	토	이현일	011-625-6945	4/1일	목	황정선	010-4627-9608
28일	주	이동만	011-609-0774			임현옥	010-3907-2360
3/1일	월	곽세종	011-9607-9883	2일	금	장현자	010-8642-9883
2일	화	송희중	010-4370-7579			조선경	010-5469-1670
3일	수	옥 룡	011-616-2360			김복희	010-5539-9919
4일	목	김종철	010-7735-9917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



운동회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줄다리기이다. 줄다리기의 묘미는 모두가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친다는 것이다. 줄다리기를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신다. 큰 힘을 들이지 않은 것 같은데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한 결과다.

그렇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성도들의 하나 된 헌신이 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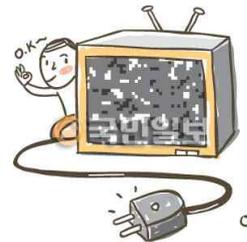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에는 하나 됨의 일치가 있다.

여기서 하나 됨은 획일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서로' '다함께' '같이', 얼마나 좋은 말들인가. 교회에는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것이 부흥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지체로 설명했다. 몸의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할은 서로 다르다. 생김새도 서로 다르다. 위치와 사명도 다르다. 그러나 모두 한 몸이다.



미디어 금식



회개와 경건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무엇인가 절제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10년 전만 해도 '미디어 패스팅'이란 말이 흔하지 않았다. 기러기 아빠 시절,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째 미디어 패스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 패스팅은 텔레비전,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같은 미디어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다.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른다. 그것을 왜 하느냐고 물었다. "아빠, 어떤 때는 누가 주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서요." 미디어의 좋은 면들은 선택적으로 활용하지만 그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의미였다. 때로 미디어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사순절에 이런 습관 하나 키워보면 어떨까.